

KOTRA자료 11-057

# 인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011. 11.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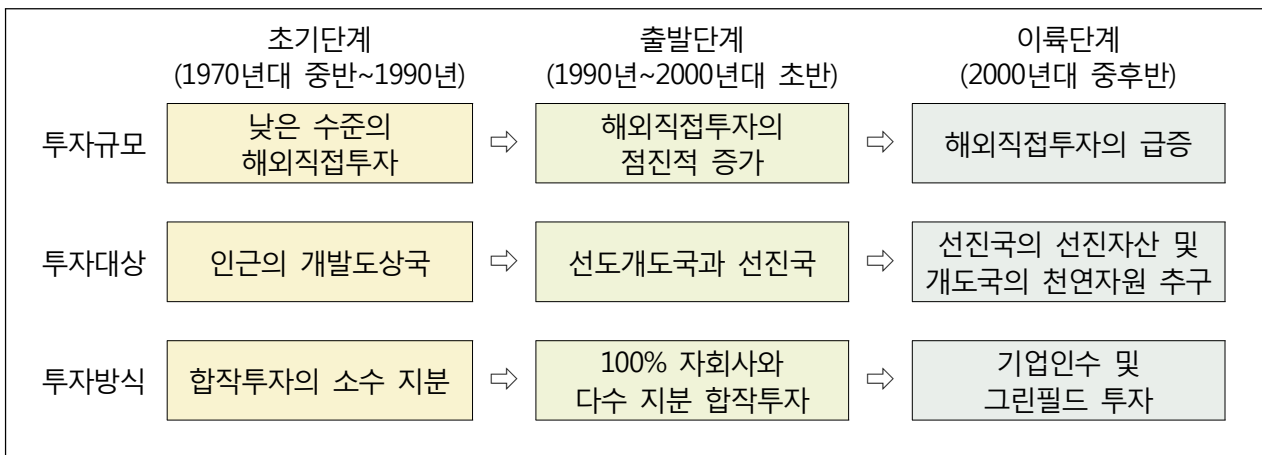
<b>Executive Summary</b> .....	1
<b>1. 인도의 부상</b> .....	4
<b>2. 인도의 해외직접투자</b>	
가. 인도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	9
나. 글로벌 투자자로서의 인도 .....	12
<b>3. 인도의 對韓 투자</b>	
가. 인도의 對韓 투자 동향 .....	20
나. 인도의 對韓 투자 특성 .....	22
<b>4. 인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b>	
가. 투자유치 확대전략 .....	25
(1) 인도의 산업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분야 .....	25
(2) IT/소프트웨어 분야 .....	27
(3) 제약 분야 .....	28
(4) 인도의 인프라개발 관련 분야 .....	29
(5) 한-인도 공동투자펀드 조성 .....	30
나. 장기적 관점의 투자협력 기반조성 .....	31
(1) 한-인도 CEPA의 적극적 활용 및 확대 .....	31
(2) 한-인도 교류기반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32
<b>【참고자료 1】 인도의 경제개발계획</b> .....	34
<b>【참고자료 2】 인도의 정치 전망</b> .....	35

# Executive Summary

## 1. 인도의 해외투자동향

- ▶ 2000년대 들어 인도의 해외직접투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인도 경제의 성장과 외환보유고의 증가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인 상승세를 보임
- ▶ 투자분야에 있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투자대상도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기존의 인근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
- ▶ 인도의 해외직접투자는 다른 BRICs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으나, 투자여력이 풍부한 인도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신규 기업 설립보다는 기존 해외기업의 M&A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인도의 해외직접투자 특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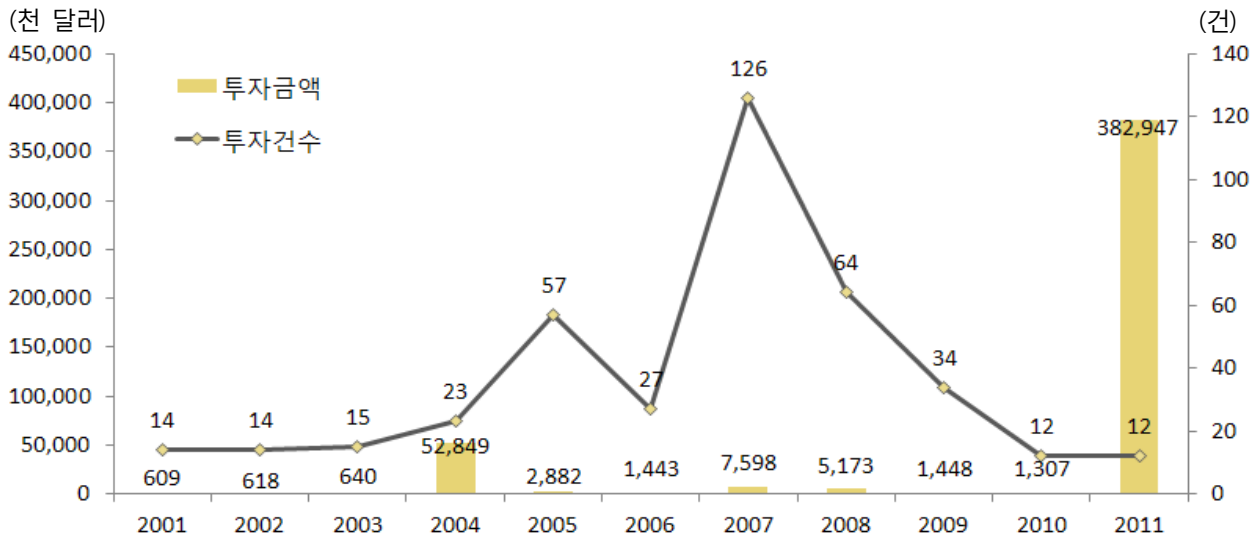
자료: Nayak(2010) 정리

- ▶ 최근 인도의 해외 M&A 투자는 인도가 강점을 보유한 부문(금속, 제약, 자동차, IT기술 등)과 국가 정책적 에너지 확보(석유, 발전 및 전략) 및 자원개발(석탄채굴, 금속)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 진출 투자가 두드러짐

## 2. 인도의 對韓투자 현황

- ▶ 1990년대 들어 활발해진 한-인도 양국 간의 교역은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 한국의 對인도 수출은 8배, 수입은 5배 증가하였으나 교역의 증가에 비해 양국 간의 직접투자규모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왔으며, 한국의 對인도 투자에 비해 인도의 한국투자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임
- ▶ Invest KOREA의 도착금액 기준 집계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 10월 말 까지 인도의 對한국 투자건수는 총 398건이며 11년간 총 투자누계 총액은 4억 5,751만 달러를 기록
- ▶ 그러나 인도의 對韓투자는 2004년에 도착한 Tata Motors의 대우상용차 인수투자와 2011년에 Mahindra & Mahindra의 쌍용자동차 인수투자 2건 외에는 주목할 만한 투자유입이 발생하지 않음

<2001~2011년 인도의 對韓 투자현황>



주: 도착기준. 2011년의 경우 10월 말 기준  
 자료: Invest KOREA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 ▶ 인도의 對韓 외국인직접투자는 활발하지 않았으나 상위 글로벌기업들은 한국의 주요 자동차업체를 단독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의 투자 여력을 지닌 잠재투자자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3. 인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1) 부문별 투자유치 전략

- ▶ 인도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여력을 지닌 상위의 글로벌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대규모 설명회보다는 투자대상별 맞춤형 투자유치 접근이 보다 효과적

<부문별 투자유치 전략>

부문	투자유치 전략
인도의 산업발전정책과 부합되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한국 굴지의 완성차 업체 2곳을 인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체 및 가전부문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li> <li>▪ 한국기업의 M&amp;A 참여 제안 및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투자처 소개</li> </ul>
IT/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으로 최첨단 수준의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IT 환경 소개</li> <li>▪ 인도 IT기업의 동아시아 진출 허브로서의 입지적·기술환경적 우위 소개</li> </ul>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글로벌 베스트셀러 약품의 특허만료로 제네릭 제조기술 및 설비를 갖춘 기업의 인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국 제약 산업의 진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li> <li>▪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국의 제네릭 제약업체 발굴 및 소개</li> </ul>
인프라개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건설, 전력 등 관련업종의 투자진출과 투자유치를 연계한 투자 프로젝트 설계</li> <li>▪ 인도의 자본과 결합한 동반투자 방안도 모색 가능</li> </ul>
공동투자펀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한-인도 공동투자펀드를 생성</li> <li>▪ 양국 간 상호 투자 및 제3국의 공동투자에 활용 가능</li> </ul>

#### (2) 한-인도 교류기반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 인도의 투자유치 및 경제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교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인도 IR, 양국 경제 기관 간 협약 체결 및 경제인의 모임 등 교류의 정례화 추진을 통해 정부차원의 관계구축에 나서야 함
- ▶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외교, 지역, 문화 등 다방면의 연계된 협력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인도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노력이 중요

# 1. 인도의 부상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는 당시 소련의 국가계획 사회주의 모형을 도입하여 자급자족형 경제개발을 추진
  - 당시 자본의 절대적 부족,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인구, 소수의 재벌형 기업가 계층 등 열악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주도 하에 국영기업을 통한 중화학 산업육성, 국내 육성산업의 보호, 수입 및 외국자본 규제 등 계획경제를 통한 발전을 시도
  - 그러나 관료주의와 공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였고, 해외 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 하에 안주하게 된 제조업 부문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저성장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
  - 80년대 까지 반복된 계획경제의 실패로 당시 경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도 하였으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투자자금이 막대한 규모의 외채가 되어 경제구조를 더욱 악화시킴
  - 결국 1991년, 수 십 년간 이어진 내수경제의 악화, 막대한 외채, 소련의 붕괴로 인한 루피(Rupee)화 대 루블(Ruble)화의 구상무역체제 붕괴 등으로 인도는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기에 이름

<1991년 외환위기 이전 인도의 경제성장률 추이>

구분	1961년	1971년	1981년	1991년
GDP 성장률	3.1	3.6	5.6	2.5
對세계 수출비중	1.1	0.6	0.4	0.5

자료: UNCTADstat

- 1991년 7월 당시 나라시마 라오(Narasimaha Rao) 총리가 시장경제원리를 근간으

로 하는 신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인도의 경제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맞음

- 국내산업 보호, 수입대체, 중화학 위주의 진흥정책 등 기존의 내부지향 자급자족형 정책에서 벗어나 親시장형 대외개방, 공공부문의 민영화, 교역 및 외국인 투자확대 등 외부지향형 시장경제모델을 도입

<인도 해외투자 정책의 변화>

연도	1978년-1991년(Phase 1)	1992년 이후(Phase 2)
정책적 목표	- 주변 개도국과의 협동 강화의 수단 - 수출 극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해외직접 투자	-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수단 - 해외 선진기술의 인수 및 신흥교역국과 교역관계 강화를 통한 수출 극대화
실행 전략	- 소수 지분참여 합작투자만 허용 - 인도기업의 사업관련 분야에 투자 - 엄격한 정식 절차에 의한 투자허가	- 해외 투자에 대한 지분규제를 철폐 - 사업 확장 및 강화를 통한 다각적 투자 - 인도중앙은행 규정에 의한 자동 승인제

자료: Global Players from Emerging Markets, UNCTAD(2007) 정리

- 이후 1999년 출범한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은 전 업종에 걸친 해외직접투자 한도 확대 및 IT산업 등 서비스업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재정적자 완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둠
- 2004년에 집권한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 주도의 UPA 정부는 1기에서 전임정부의 개혁정책이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었음을 비판하여 국내발전과 소외계층 중심의 복지확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1기 좌파 성향의 영향력이 많이 배제되어 경제자유화 및 개방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 중

□ 인도의 경제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9.1%와 8.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향후 2015년까지 평균 8%대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더욱이 인도 경제는 GDP성장에서 내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57%로 중국의 40%미만 수준과 비교해도 비율이 높은 편이며, 내수시장만

으로도 연간 6~7%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인도의 경제성장률>

(단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성장률	5.1	9.1	8.8	7.9	8.4	8.3	8.7	8.5

주: 2011-2015년의 각 수치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추정치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이러한 안정적 성장기반은 인도가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비교적 영향을 덜 받으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으며, 현재 인도 인구의 65%가 35세 이하인 젊은층이라는 점은 향후 지속적인 구매력 및 노동력 공급능력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력을 추월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 인도의 외환보유고는 1991년 신경제정책 발표 시 10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 말에는 2,973억 달러로, 10년간 30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으로 성장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국	28,473 ( 795)	6	한국	2,916 ( 13)
2	일본	10,962 ( -48)	7	브라질	2,886 ( 31)
3	러시아	4,794 ( -37)	8	스위스	2,705 ( 37)
4	대만	3,820 ( 27)	9	홍콩	2,687 ( 26)
5	인도	2,973 ( 49)	10	싱가포르	2,258 ( 82)

주: 2010년 12월 말 잔액 기준, ( )내는 전월 말 대비 증감액  
 중국의 경우 2010년 9월 말 대비 증가액을 표기  
 자료: 한국은행

- 인도정부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해외투자 시 1억 달러의 상한제를 폐지하고 회사 순 자산의 100%까지 자동승인 되도록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한데에 이어, 2005년부터는 순 자산의 200%까지 허용함으로써 인도기업들의 대규모 해외투

자를 가능하게 함

□ 한편, 고질적인 거액의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인도경제의 취약점으로 작용

<인도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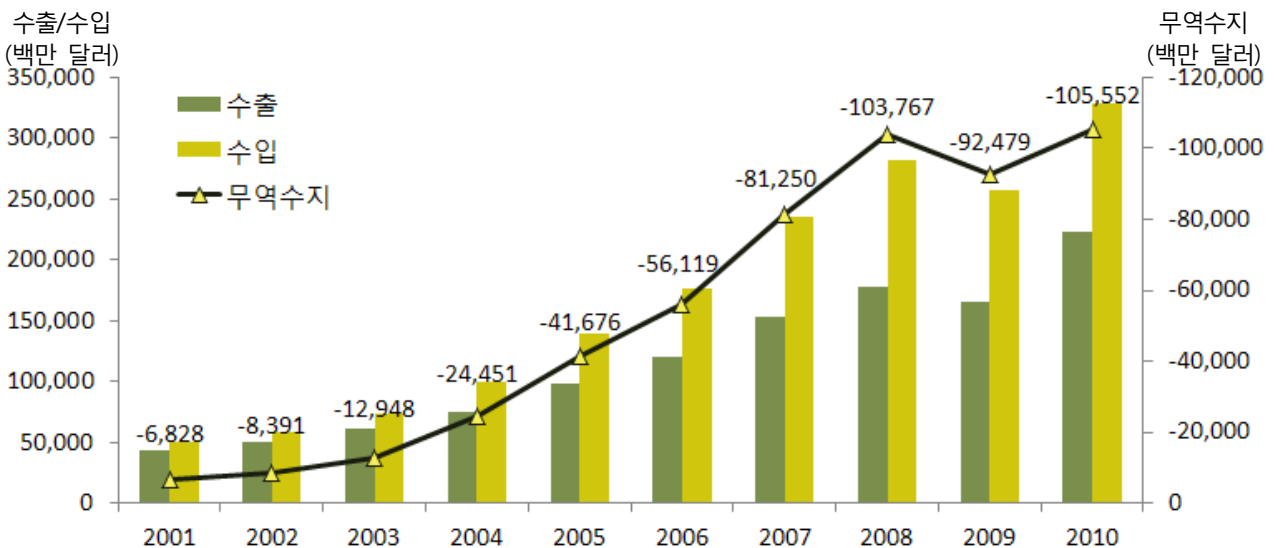
재정지표 (GDP대비 비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sup>1)</sup>
중앙정부수익(%)	10.3	11.8	9.8	10.5	10.7	11.1
중앙정부지출(%)	13.6	14.4	15.8	16.6	15.6	15.8
중앙정부수지(%)	-3.3	-2.6	-6.0	-6.1	-5.0	-4.7
순정부부채(%)	59.3	57.3	56.2	53.4	50.6	51.1

주: 1) 2011년은 EIU 추정치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KITA

- 인도의 중앙정부수익은 큰 변화가 없으나 정부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중앙정부수지의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재정적자 누계가 GDP의 60%에 달해 정부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

<인도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KITA database를 기준으로 작성

- 경제성장에 따른 고질적인 무역적자도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는 구조적 개선에 의해서가 아닌, 인교(印僑, 인도인 해외교포)를 대상으

로 한 강력한 송금촉진정책 및 IT 서비스 부문의 수출증가로 상쇄하는 구조를 지님

- 더욱이, 최근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정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설비 공사 관련 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재정적 정비와 세수증가정책이 절실한 상황

□ 그러나 인도의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지속적인 인구증가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전통,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성 및 영어사용 능력 등 중장기적 경제성장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점을 들어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는 인도경제를 21세기에 미국 및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각종 경제적 악재로 마이너스에 가까운 성장률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와의 경제교류 확대는 필수적임

#### <최근 인도의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sup>1)</sup>
GDP(십억 달러)	958.1	1,187.3	1,261.9	1,364.5	1,728.9	1,982.8
실질GDP성장률(%)	9.4	9.6	5.1	9.1	8.8	7.9
1인당 GDP(달러)	2,568	2,852	3,014	3,267	3,354	3,809
인구(백만 명)	1,111.7	1,129.9	1,148.0	1,166.1	1,184.1	1,202.1
수출(십억 달러)	120.5	153.7	177.7	165.1	223.1	n.a.
수입(십억 달러)	176.6	235.0	281.4	257.6	328.7	n.a.
소비자물가상승률(%)	6.2	6.4	8.4	10.9	12.0	7.2
대외부채(%)	16.5	17.1	17.8	17.4	14.6	13.5
대외부채(십억 달러)	158.4	202.7	224.7	237.6	251.8	267.4
지급이자(십억 달러)	4.9	7.2	7.2	5.4	6.8	7.2
외환보유고(십억 달러)	176.1	273.8	254.0	274.6	287.0	340.4

주: 1) 2011년은 EIU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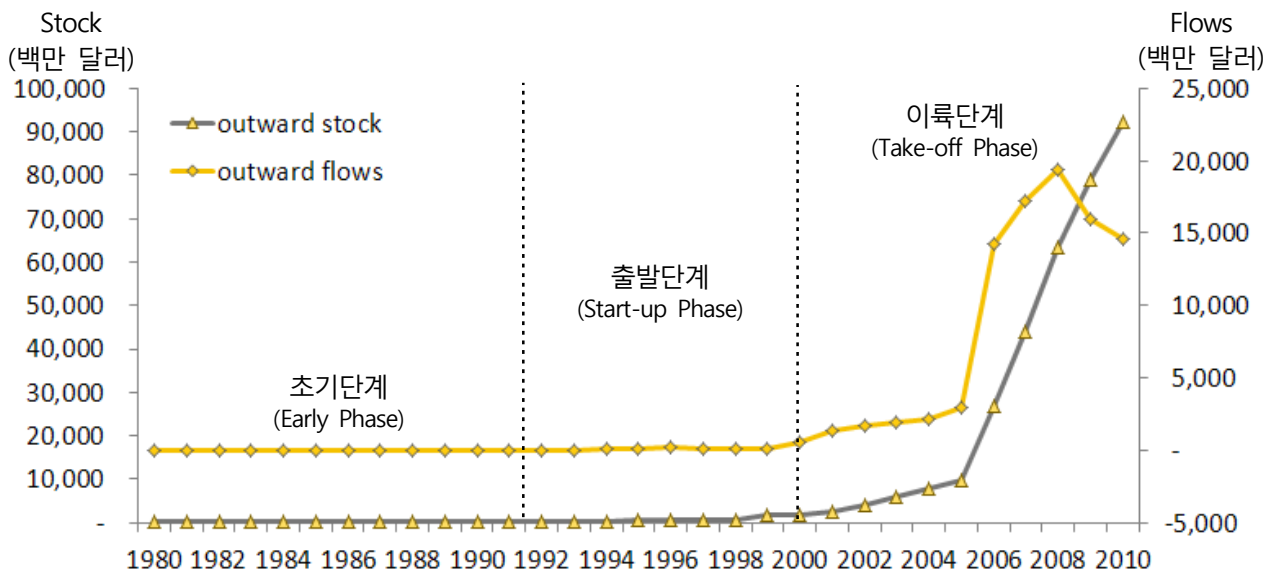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KITA

## 2. 인도의 해외직접투자

### 가. 인도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 인도의 경제발전은 일반적으로 1991년 신경제정책 전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2000년을 전후로 증가세에 있어서 규모 및 특성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인도의 초기단계(Early Phase) 해외직접투자는 인도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법적 규제 하에서 주변 개발도상국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인도정부의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던 중화학 공업 부문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인도의 해외직접투자 발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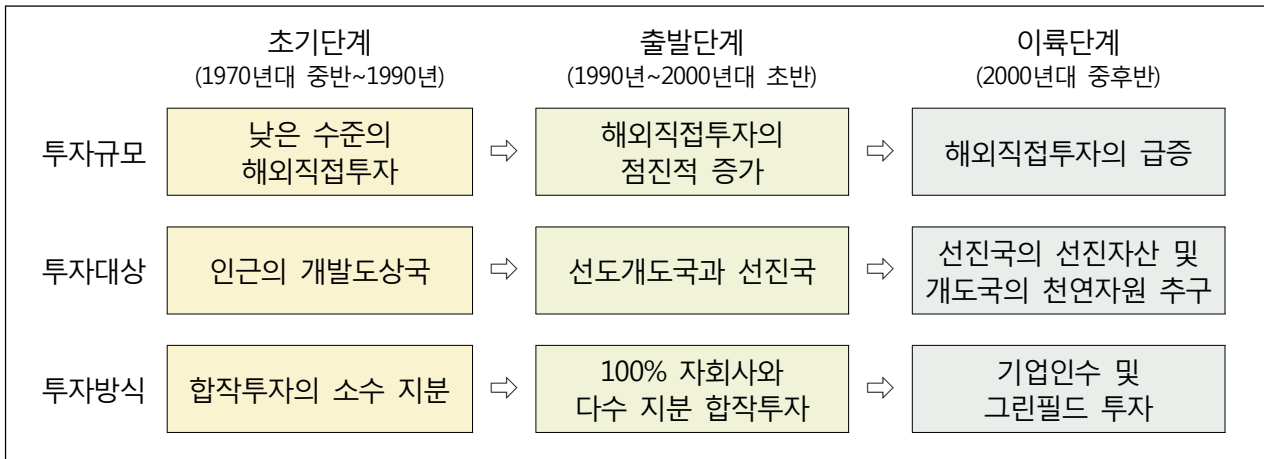


자료: Nayak(2010) 및 UNCTADstat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이후 1991년 외부 지향적 시장경제모델의 도입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점진적인 투자증가세에 접어들게 되었으나, 금액면에 있어서는 큰 폭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음

- 2000년대 이후의 해외직접투자는 인도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인도 경제의 성장과 외환보유고의 증가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전과는 뚜렷한 특성적 차이를 드러냄
  - 투자분야에 있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투자대상도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기존의 인근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전환
  - 인도의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진국 기업들의 기술, 마케팅, 브랜드, 설비 등 선진자산 확보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M&A를 활발히 수행

<인도의 해외직접투자 특성의 변화>



자료: Nayak(2010) 정리

- 동시에 아프리카 및 에너지 산유국으로의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자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인도의 원유 수입의존도는 2008년 기준으로 75%에 달하며, 2012년에는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경제발전예 따른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원유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유전개발 참여 및 권리취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도 최대의 석유개발국영기업인 ONGC(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는 수단이나 리비아 유전개발권 취득 및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계약

-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인도 내부에서는 중동 및 중국과 같이 국부펀드를 조성하자는 논의가 현재 진행 중
  - BRICs 국가 중 유일하게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도는, 최근 중국이 국부펀드를 앞세워 해외 에너지 자산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자 국영 석유업체를 중심으로 국부펀드의 설립요구가 높아짐

<BRICs 국가들의 국부펀드 현황>

(단위: 십억 달러)

국가	설립년도	국부펀드 명	자산
중국	1997	SAFE Investment Company	567.9
	2007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409.6
	2000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146.5
	2007	China-Africa Development Fund	5.0
러시아	2008	National Welfare Fund	142.5
브라질	2008	Sovereign Fund of Brazil	11.3
BRICs 소계			1,282.8
전 세계 총계			4,766.0

주: 2011년 10월 말 기준

자료: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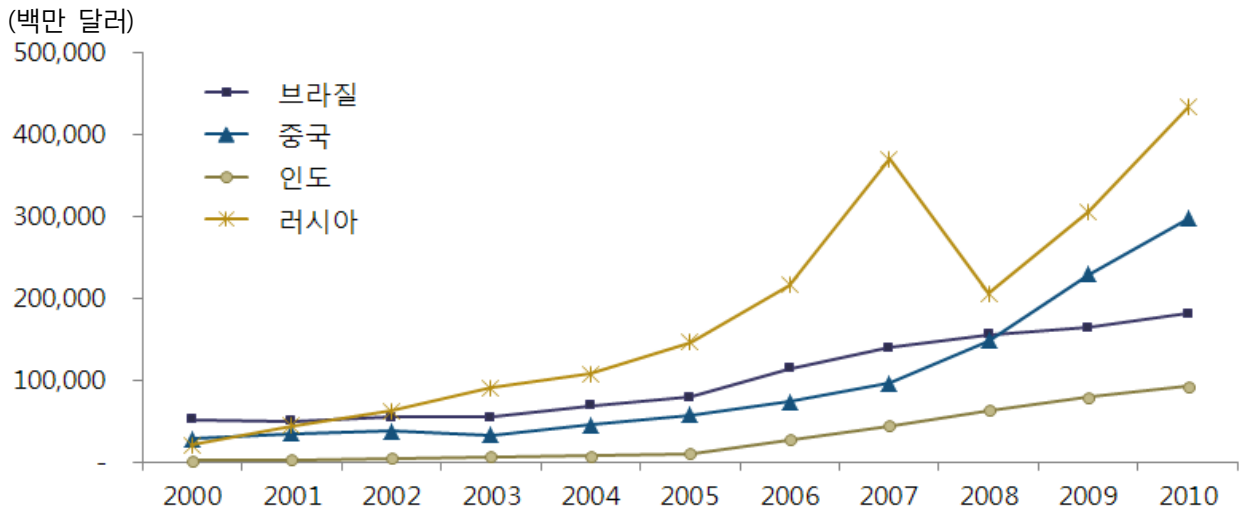
- 중국 에너지기업들은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의 지원 하에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3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한 중국-아프리카 개발펀드 (China-Africa Development Fund)를 별도로 설립하여 적극적인 자원개척에 나서고 있음
- 인도의 석유개발 국영기업인 ONGC는 최근 2년간 중국 기업들과의 에너지 입찰경쟁에서 연이어 패했으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금력의 부족으로 매번 고배를 마시자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

- 인도는 지난 2006년에도 국부펀드 설립을 검토한 바 있으나, 중앙은행의 보수적인 성향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과 만성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상태인 인도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인도의 국부펀드 설립에 대한 내부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설립될 경우 펀드자금은 대부분 해외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투입될 계획임

### 나. 글로벌 투자자로서의 인도

- 인도는 1991년 유가급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외화 획득”이 경제정책의 최고 명제로 자리 잡았으며, 수입보다는 수출, 해외투자보다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배치

<BRICs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주: Stock 기준  
 자료: UNCTADstat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2000년대 들어 인도의 해외투자정책이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인도는 여전히 BRICs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해외직접투자 실적을 기록

- 그러나 인도의 해외직접투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외환을 축적한 글로벌기업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 내에 만연해있는 경제적 규제를 피해 해외로 투자처를 전환하며 인도의 해외직접투자를 주도

<인도의 글로벌기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기업명	산업	해외자산	총자산	해외매출	총매출
1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석유/가스	4,724	21,031	1,645	17,115
2	Tata Group of companies	복합기업	4,169	8,199	3,576	9,752
3	Videocon Industries Limited	복합기업	1,626	2,297	966	1,632
4	Ranbaxy Laboratories Limited	제약	1,077	1,566	859	918
5	Dr. Reddy's Laboratories Limited	제약	869	1,390	362	549
6	HCL Technologies Limited	IT 서비스	777	926	780	1,034
7	Hindalco industries Limited	금속/제조	581	4,272	147	2,577
8	Sun Pharmaceuticals Industries	제조	281	815	157	393
9	Reliance Industries Limited	석유/가스	250	21,901	414	20,560
10	Suzlon Energy	전력/에너지	135	918	70	868
11	Larsen & Toubro Limited	엔지니어링/건설	130	3,718	143	3,800
12	Wipro Technologies	IT 서비스	128	1,465	1,906	2,399
13	Bharat Forge Limited	자동차부품	106	570	473	682
14	Patni computer Systems Limited	IT 서비스	81	639	587	590
15	Hexaware Technologies Limited	IT 서비스	69	145	184	192
16	Biocon Limited	제약	50	291	23	178
17	i-Gate Global Solutions Limited	IT 서비스	49	91	12	144
18	Max India Limited	복합기업	37	485	7	348
19	Mahindra & Mahindra Limited	자동차제조	35	883	74	2,061
20	NIIIT Limited	IT 서비스	31	115	40	102
21	Piramal Healthcare Limited	제약	26	319	77	358
22	Birlasoft (India) Limited	IT 서비스	21	48	n.a.	133
23	Raymond Limited	섬유제조	18	457	24	318
24	Infosys Technologies Limited	IT 서비스	9	1,590	197	2,153

자료 : ISB-VCC survey ranking of Indian multinationals(2009)

- 인도의 기업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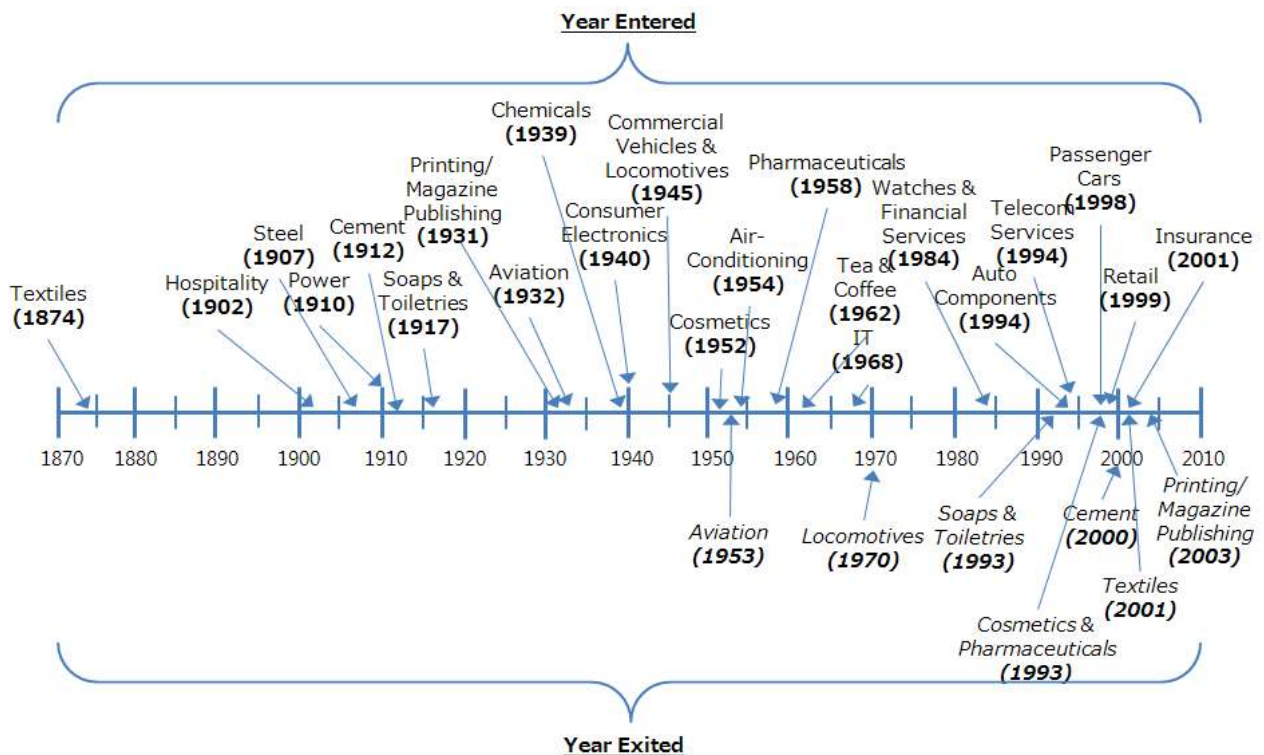
보수적인 운영을 통하여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했던 3개 기업 또한 24대 글로벌 기업에 속한 기업들로, Tata Motors는 2위인 Tata Group의 계열사이며, Mahindra & Mahindra는 19위, 2006년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참여했던 Videocon도 글로벌 기업 순위 3위에 랭크되어 있음

□ 인도 글로벌 기업의 2위와 3위에 올라있는 Tata Group과 Videocon은 인도 대기업의 전형인 복합기업으로, 동족경영을 바탕으로 사업부문의 다각화를 통해 성장한 전형적인 재벌기업의 특성을 가짐

- Tata Group은 주력산업을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자동차 엔지니어링, 소재, 에너지, 화학, 서비스, 가전, 출판, 소비자식품, 금융, IT 등 전 산업에 걸쳐 최상위의 기업을 보유

<Tata Group의 사업다각화 연혁>



자료 : Nayak(2011), Indian Multinationals

- Tata Group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우상용차 인수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70여 건에 달하는 M&A를 수행하고 있으며, 꾸준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사업 영역 확대와 기업역량을 강화해나가는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자로 평가됨
  - Videocon 또한 스웨덴 일렉트로룩스의 인도 공장 및 아시아지역 브랜드 마케팅 권리 인수, 프랑스 톰슨의 TV브라운관 공장 인수, 일본 파나소닉의 인도현지 제조공장 인수 등을 통해 글로벌 가전업체로 급부상
  - Videocon은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건과 함께 LG전자 인도법인 사장 출신의 한국인을 CEO로 영입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국내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으며, 한국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인도의 24대 글로벌 기업 순위에는 IT 서비스 부문의 기업들이 8개로 1/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IT 강국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도의 3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TCS, Infosys, Wipro가 꼽힘
- TCS(Tata Consultancy Service)는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Tata Group 계열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1965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네덜란드 은행으로부터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수와 관리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Infosys는 1981년에 방갈로르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으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솔루션 컨설팅업을 운영하며 세계 각국에 진출하여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2006년에 인도 기업으로는 최초로 나스닥에 등록된 기록을 보유
  - Wipro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식물성 기름과 비누,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이었으나 1991년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하여 현재는 회사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소프트웨어 부문이 차지

## &lt;인도의 주요 해외 Greenfield 투자 현황&gt;

(단위: 백만달러)

순위	연도	기업명	부문	투자대상국	금액
1	2008/09	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란	5,150
2	2007	GAIL India	화학	사우디아라비아	4,150
3	2008	Tata Group	금속	베트남	3,500
4	2008	ONGC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란	3,000
5	2006	ONGC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란	2,000
6	2008	Era Group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잠비아	1,800
7	2007	Mahindra Satyam	소프트웨어/ITES	말레이시아	1,714
8	2009	EssarGroup	석탄, 석유, 천연가스	케냐	1,701
9	2007	Videocon Industries	생활가전	폴란드	1,700
10	2007	Ispat Industries	금속	필리핀	1,600
11	2008	Essar Group	금속	미국	1,600
12	2007	Videocon Industries	생활가전	이탈리아	1,576
13	2008	National Aluminium Company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인도네시아	1,500
14	2008/09	ONGC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라크	1,450
15	2008	SKIL Infrastructure	부동산	오만	1,200
16	2007	Ispat Industries	석탄, 석유, 천연가스	몬테네그로	1,100
17	2007	Reliance Industries	화학	이집트	1,000
18	2007	Jindal Organisation	금속	미국	1,000

자료: Vale Columbia Center(2010)

- 2006-2009년 동안 실시되었던 인도의 Green-field 형 해외직접투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금속과 같은 에너지와 자원개발 부문의 비중이 높았으며, 투자지역도 아시아의 개도국, 중동의 산유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
- Videocon의 폴란드와 이탈리아 투자는 LCD 생산 공장 신설로, 이곳에서 생산된 LCD TV 및 관련 가전제품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인도로 수입하여 내수용으로도 판매

## &lt;인도의 주요 해외 M&amp;A 투자 현황&gt;

(단위: 백만 달러)

	기업명	인수기업	대상국가	금액	연도	
금속	Tata Steel	Corus Steel	영국	12,100	2007	
	Tata Steel	Millennium Steel	태국	175	2005	
	Tata Steel	NatSteel Asia	싱가포르	384	2004	
	Hindalco(Aditya Birla)	Novelis	미국	6,000	2007	
	Ispat Industries	Finmetal Holdings	불가리아	300	2005	
제약	Dr. Reddy's	Betapharm GmbH	독일	570	2006	
	Ranbaxy Laboratories	Terapia SA	루마니아	324	2006	
	Matrix Laboratories	Docpharma NV	벨기에	235	2005	
화학	Tata Chemicals	Brunner Mond	영국	177	2005	
	Reliance Industries	Trevira GmbH	독일	95	2004	
자동차	Tata Motors	Daewoo Commercial Vehicle Co	한국	102	2004	
	Tata Motors	Jaguar and Land Rover	영국	2,500	2008	
	Tata Motors	Hispano Carrocera	스페인	16	2005	
	Bharat Forge	Federal Forge	미국	n.a.	2005	
	Bharat Forge	Carl Dan Peddinghaus	독일	49	2003	
	Mahindra and Mahindra	Jiangling Tractor	중국	8	2004	
	Mahindra and Mahindra	Stokes Group	영국	15	2006	
	소비재	Kraft Foods Ltd	United Biscuits	영국	522	2006
		Tata Tea	Tetley Group	영국	431	2000
Tata Tea		Good Earth	미국	50	2005	
Tata Tea and Tata Sons		Glaceau	미국	677	2006	
Tata Coffee		Eight O'Clock Coffee	미국	220	2006	
United Spirit		White and Mackay	영국	1,110	2007	
발전 및 전력		Suzlon Energy	Hansen Transmissions	벨기에	565	2006
		Suzlon Energy	Repower Systems	독일	1,700	2006
	Videocon International	Thomson SA	유럽/중국/멕시코	289	2005	
	Opto Circuits	India Ltd Eurocor GmbH	독일	600	2005	

정보기술	Wipro Ltd	Infocrossing	미국	600	2007
	I-Flex Solutions	Mantas Inc	미국	113	2006
	Sasken Communication Technologies Ltd	Botnia Hightech	핀란드	210	2006
	Tata Consultancy Services	TKS Technosoft	스위스	80	2006
	Seagate Technology Ltd	EVault Inc	영국	185	2006
	Citrix Software Pvt Ltd	Sequoia Software	영국	185	2001
	Videsh Sanchar Nigam Ltd	Teleglobe International	영국	254	2005
통신	Reliance Infocomm	Flag Telecom	영국	191	2003
	Bharti Airtel	MTN	남아공	13,000	2009
석유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ONGC) Videsh	Petrobras	브라질	1,400	2006
	ONGC Videsh	Greater Nile Oil Project	수단	766	2002
	ONGC Videsh	Sakhalin-I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roject	러시아	323	2000
	ONGC Videsh	Greater Plutonio Project	앙골라	600	2004
기타	Ballarpur Industries Ltd	Sabha Forest Industries (펄프/종이)	말레이시아	209	2006
	Tata Power	PT Bumi Resources (석탄채굴)	태국	1,100	2007

자료: Vale Columbia Center(2010)

- 2000-2009년 인도의 해외 M&A 투자는 인도가 강점을 보유한 부문(금속, 제약, 자동차, IT기술 등)과 국가 정책적 에너지 확보(석유, 발전 및 전력) 및 자원개발(석탄채굴, 금속)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 진출 투자가 두드러짐
- 최근에는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통신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6월 초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인 쿠웨이트의 자인(Zain) 그룹의 아프리카 사업부문을 107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인도의 본격적인 아프리카 시장 선점전략을 실시
  - 아프리카 시장은 인구증가율이 높고 시장의 성장전망이 높으며 기간통신 인프라가 미흡해 향후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요 통신사업자 간 경

쟁이 심하지 않아 투자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아프리카 시장은 인도와 지리상으로도 가깝다는 이점 외에, 10억이 넘는 인구 규모 및 다양한 문화 혼재, 소득 불균형 심화 및 다수의 저소득층 인구 등 인도 시장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인도의 투자대상으로 각광받고 있음

□ 최근 5년간 인도의 해외직접투자는 원유·가스, 금속·광업 등 원자재 기업과 자동차 관련 제조업 및 제약, IT, 통신 부문에 M&A 형태로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대상국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

<인도의 해외직접투자 특성 정리>

산업	주요 투자대상국	투자특성
자동차(부품)	한국, 영국, 스페인, 미국, 독일, 중국	선진국의 완성차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부품업체 인수에도 적극적
IT/소프트웨어	유럽 및 미국	고객기반 확보 및 선진기술 획득을 위해 선진 해외기업을 적극 인수
의료/제약	유럽 및 미국	제네릭 제조·판매기업의 인수에 치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기업들의 인수에 집중
가전/소비재	유럽 및 미국	해외시장 및 선진 브랜드의 확보를 위해 주로 유럽 및 미국기업을 인수
에너지(석유·가스)	이란, 이라크, 잠비아, 앙골라,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몬테네그로, 브라질, 케냐	경제성장에 동반하여 소비량이 급속히 늘고 있는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산유국에서 유전·가스전을 인수하거나 지분투자를 통해 자원 확보
에너지(발전·전력)	유럽(벨기에 및 독일)	인도의 만성적 전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및 자가발전 부문의 선진기술 및 설비 확보
금속/광업	베트남, 필리핀, 미국, 태국, 호주	구리, 석탄광산 등 해외 원자재 확보를 위한 기업인수
통신	남아공, 우간다, 모리셔스	인구증가율이 높고 통신 인프라가 미흡한 아프리카 지역의 선점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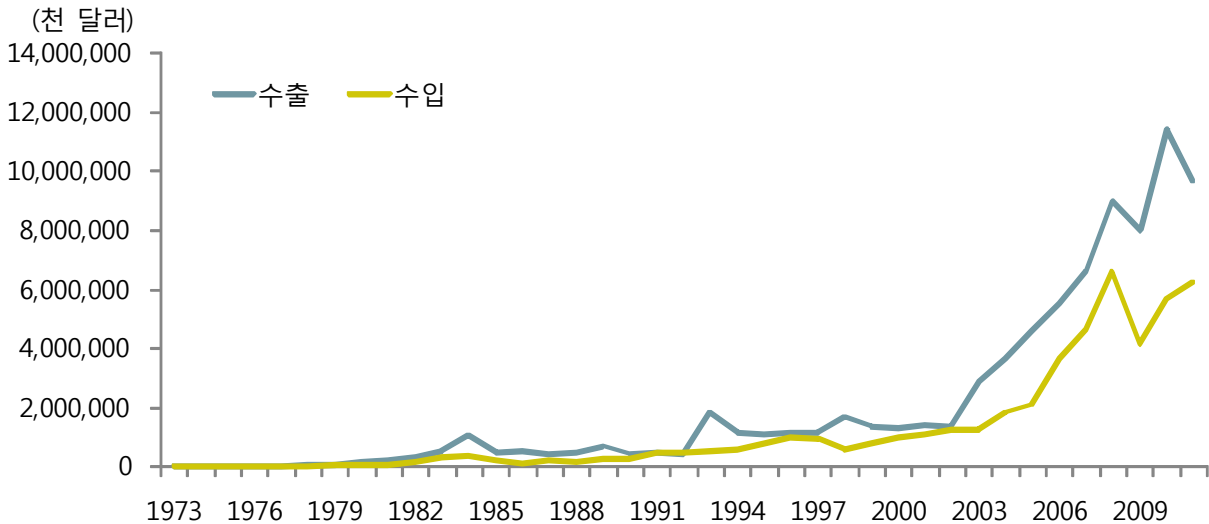
자료: 각종 언론보도자료 종합

### 3. 인도의 對韓 투자

#### 가. 인도의 對韓 투자 동향

- 1973년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인도는 표면적으로 비동맹 중립정책을 표방하며 남북한 등거리 대외정책 실시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정치·외교 중심의 관계에서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한 실리적인 관계로 발전

<한국과 인도의 교역 추이>



자료: 수출입은행

- 1990년대 들어 활발해진 양국 간의 교역은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8배 이상 증가한 반면 수입은 5배 증가
- 양국 간 교역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부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인도는 석유제품, 천연섬유絲, 금속광물, 합금철선 등을 수출
- 특히, 지난해 1월 1일자로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직후 한국의 對인도 수출은

42.7% 증가하였으며, 인도의 대한국 수출도 37% 증가하였으나, 양국 간 제조업의 경쟁력 차이로 무역수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그러나 교역의 증가에 비해 양국 간의 직접투자규모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왔으며, 한국의 對인도 투자에 비해 인도의 한국투자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임

<한국과 인도의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연도	2001-2002년	2003-2004년	2005-2006년	2007-2008년	2009-2010년
한국→인도	78,567	70,891	265,141	626,248	536,426
인도→한국	1,621	53,342	6,247	15,807	374,809

주: 신고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 지난 6년간 인도의 對한국 투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Mahindra & Mahindra의 쌍용자동차 인수로 사상 최대금액이 유입된 2010년에도 2.84%에 그쳐 한국에 대한 낮은 투자율을 보임

<주요 對韓 투자국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11,565,528	11,247,441	10,515,625	11,711,804	11,484,139	13,070,195
일본	1,880,795	2,111,046	990,290	1,423,941	1,934,253	2,083,233
미국	2,689,764	1,710,925	2,329,120	1,328,190	1,486,417	1,974,404
네덜란드	1,140,928	791,717	1,965,056	1,228,067	1,897,667	1,184,887
영국	2,316,458	706,556	363,853	1,232,792	1,952,895	648,956
중국	68,414	37,887	384,131	335,481	159,607	414,177
독일	704,812	483,907	438,902	685,418	569,813	268,260
프랑스	85,179	1,173,434	439,300	537,889	109,551	159,919
인도 (전체비중)	3,735 (0.03%)	2,512 (0.02%)	9,454 (0.09%)	6,353 (0.05%)	3,373 (0.03%)	371,436 (2.84%)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신고기준)

- 2005-2010년 BRICs 4개국의 對韓투자 현황에서 인도는 중국에 이은 두 번째 투자국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Mahindra & Mahindra의 쌍용자동차 인수투자건을 제외하면 러시아의 對韓투자와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BRICs 국가들의 對韓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BRICs 전체	75,555	42,870	396,433	357,955	164,628	820,806
중국	68,414	37,887	384,131	335,601	159,607	414,178
인도	3,735	2,512	9,454	6,353	3,373	371,436
브라질	900	158	321	0	222	30,139
러시아	2,506	2,314	2,526	16,001	1,426	5,054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신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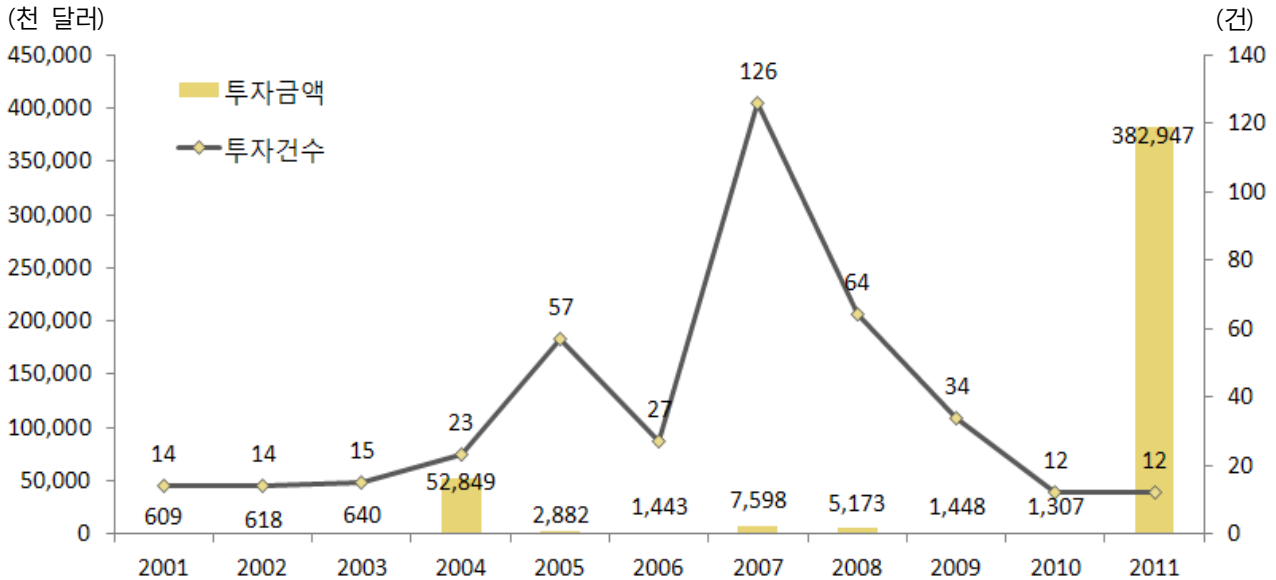
- 그러나 뚜렷한 한국투자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 완성차업체의 구조조정 매각의 대상국으로 미국(GM대우), 프랑스(삼성르노)와 함께 등장한 인도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대우 상용차, 쌍용 자동차 2개사를 인수하며 단번에 새로운 투자유치 대상국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음

나. 인도의 對韓 투자 특성

- Invest KOREA의 도착금액 기준 집계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 10월 말 까지 인도의 對한국 투자건수는 총 398건이며 11년간 총 투자누계 총액은 4억 5,751만 달러를 기록
  - 2007년과 2008년은 한-인도 CEPA 협상이 본격 진행된 시기로, 향후 관세철폐로 인한 교역증대를 활용하기 위한 도·소매(유통) 부문의 투자가 많이 진행됨
  - 그러나 인도의 對韓투자는 2004년에 도착한 Tata Motors의 대우상용차 인수투자자와 2011년에 Mahindra & Mahindra의 쌍용자동차 인수투자 2건 외에는 주

목할 만한 투자유입이 발생하지 않음

<2001~2011년 인도의 對韓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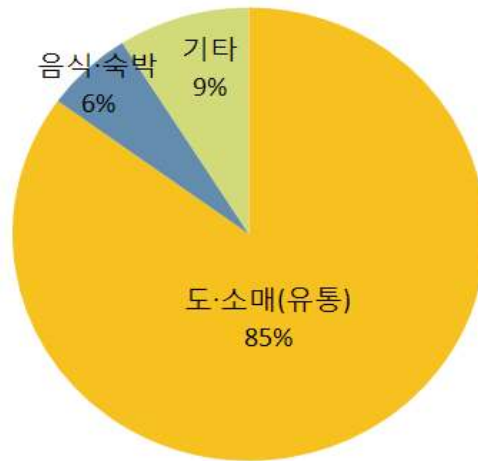


주: 도착기준. 2011년의 경우 10월 말 기준  
 자료: Invest KOREA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 지난 10년간(2001-2011년) 인도의 대한 직접투자를 분석했을 때, 도소매업의 투자건수가 총 33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음식·숙박업 24건으로 두 분야의 투자건수가 전체의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소매업의 투자는 한-인도 간 수출입 거점을 위한 소규모 사무소 투자가 대부분이며, 음식·숙박업 분야의 투자도 인도음식점 관련 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인도의 대한 투자는 소규모의 교역 및 음식·숙박이 주를 이루는 투자의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7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의 총 투자금액은 약 1,600만 달러로 총 투자금액의 3.5%에 불과
  - 이는 그동안 인도로부터의 투자건수의 증가 및 감소는 큰 의미가 없었으며, 해

외 투자력을 보유한 인도의 일부 대형 기업들의 투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

<2001~2011년 인도의 對韓 투자업종>



주: 도착건수기준. 2011년은 10월말까지의 실적 포함  
자료: Invest KOREA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Tata Motors와 Mahindra & Mahindra의 한국 자동차 인수투자 2건의 금액이 지난 10년간 전체투자유입의 95%를 차지
- 인도의 對韓 외국인직접투자는 활발하지 않았으나 상위 글로벌기업들은 한국의 주요 자동차업체를 단독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의 투자 여력을 지닌 잠재투자자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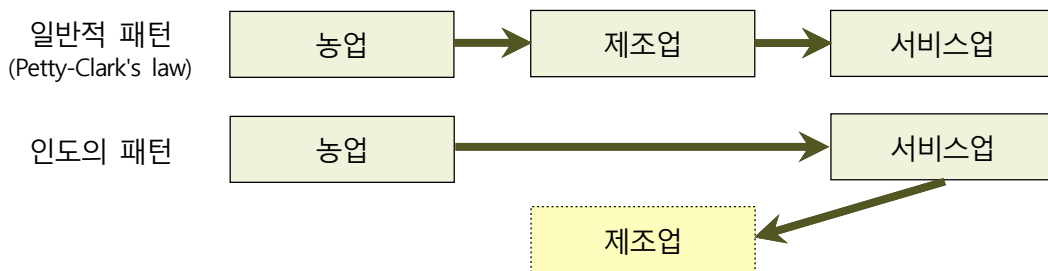
## 4. 인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가. 투자유치 확대전략

#### (1) 인도의 산업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분야

- 영국 독립 직후부터 실시된 강력한 국내기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인도의 제조업 부문은 규제보호에 안주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담보상태에 빠짐
  - 농업중심의 경제에서 제조업 단계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현재 IT, 제약, 의료, 영화 등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이 인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
  - 경제발전과 소득상승에 따라 1차 산업(농·림·수산업)에서 2차 산업(제조업, 건설업 등), 3차 산업(서비스업) 순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어 간다는 페티클라크의 법칙(Petty-Clark's law)과는 다르게 인도에서는 다른 패턴으로 산업이 발전

<인도의 경제발전 패턴>



- 그러나 현재 인도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서비스업, 특히 IT 부문은 고용창출 능력이 부족하고 신규고용증가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 발전의 정책적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됨
- 이에 인도 정부에서는 고용창출 효과 및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의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 중이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부문의 투자

유치를 위해 인프라 개발에 나서고 있음

- 제조업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의 글로벌 기업들은 선진국의 제조부문 기업의 인수를 통해 기술, 설비, 브랜드, 네트워크 등 전략적 자산 추구형 (strategic Asset seeking)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형 구조조정 기업 및 자동차(부품), 제약 관련 제조업이 투자유치에 유망
  - 인도의 Tata Motors는 1994년 상용차부문의 폴 라인업 구축과 기술획득을 위해 한국의 대우상용차를 인수하였으며, Mahindra & Mahindra는 쌍용자동차를 2010년 인수함으로써 SUV 부문의 기술과 생산시설 확충을 도모
  - 쌍용자동차 인수에는 Mahindra & Mahindra 외에도 인도의 루이아 그룹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한국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루이아 그룹의 쿠마 회장은 인수에 실패한 이후에도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 인수에 대한 의지를 언론에 적극 표명
  - 또한 인수금액 및 조건에 합의를 보지 못해 최종 인수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인도 굴지의 글로벌기업인 Videocon은 지난 2006년 한국의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기업으로 낙찰된 바 있으며, 직후에도 당시 LG 필립스 인수 의향을 표명하는 등 기술력과 인지도를 갖춘 한국의 대형 제조업에 큰 관심을 나타냄
- 인도의 기업문화는 인수대상기업을 통해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서구의 기업문화와 달리, 피인수기업 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거나 기존사업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 한국의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정서적 반감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 2004년 한국의 대우상용차를 인수한 인도의 Tata Motors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수 후 4년 만에 수출 5배, 매출액 2배, 고용인원 60%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음

- 또한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제품에 대해 대우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전 직원 중 70% 이상이 전북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여 2010년에는 전북지역의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함
-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철수로 한국 내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쌍용자동차의 새로운 대주주로 인도의 Mahindra & Mahindra가 선정된 것도 Tata Motors의 선례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

## (2) IT/ 소프트웨어 분야

- 인도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강점을 가진 IT 분야의 해외진출이 최근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휴먼 리소스와 고객서비스 부문은 이미 유럽과 미국의 선진 IT시장에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IT 및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특허기술 및 지적재산권 획득을 위해 미국 및 유럽기업들을 중심으로 선진 해외기업을 적극 인수 중
- 한국의 IT 시장은 스마트폰을 필두로 4세대 통신망 상용화 등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을 주도하는 최첨단 수준의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갖춘 시장으로, IT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세계적인 강점을 가진 인도 기업들을 유치하기에 기술적으로 최적의 투자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실제로 2011년 10월, 인도에서 설립되어 현재 세계 최대 모바일 광고회사로 성장한 인모비(Inmobi)는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모바일광고시장 진출을 선언
  - 한국과 인도의 IT 산업은 주력분야 및 중점기술이 달라 상호간 보완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산업 생산 활동에 인도의 IT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경우 단기적인 비용구조 개선효과는 물론 기술 확대 및 산업성장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기대 가능

### (3) 제약 분야

□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제품들을 통해 성장해온 인도의 제약 산업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R&D 역량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저비용과 기술, 국내외의 수요증가로 인한 글로벌화를 추진 중

- 2007년 말을 기점으로 전 세계 42개 베스트셀러 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향후 2016년까지 제약부문의 블록버스터라 불리는 약품들의 특허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제네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됨

<2011~2012 특허만료예정 글로벌 베스트셀링 약품>

연도	순위	제품	회사	미국내 연매출 추정치(백만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1	1	리피토	Pfizer(미)	4,528	492	146	73	45
	2	자이프레사	Eli Lilly(미)	1,949	339	218	188	172
	3	레바퀸	J&J(미)	734	155	62	43	30
	4	콘사타	J&J(미)	587	306	221	189	150
	5	프로토닉스	Pfizer(미)	279	172	96	84	41
2012	1	플라빅스	BMS(미)-Sanofi(프)	6,315	3,014	382	113	61
	2	세로켈	AstraZeneca(영)	3,771	1,669	985	861	792
	3	싱글레어	Merk(미)	3,356	2,178	364	125	53
	4	악토스	다케다(일)	3,275	1,360	582	511	462
	5	엔브렐	Amgen(미)	3,258	3,218	3,157	3,097	3,024
	6	렉사프로	Forest(미)	2,122	188	66	50	43
	7	디오반	Novartis(스)	2,093	1,540	394	333	279
	8	비아그라	Pfizer(미)	1,007	328	75	59	54
	9	프로비질	Cephalon(미)	916	403	87	38	28
	10	지오돈	Pfizer(미)	907	539	120	35	28

자료: 메디컬투데이

- 인도의 제약 산업은 영어를 사용하는 숙련된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임상실험

비용이 저렴하며 약품개발에 있어 비용효과가 뛰어나 미국 이외의 국가 중 최  
다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제조시설을 보유

- 뛰어난 여건을 기반으로 2000년대 초반 인도 제약업계는 평균 9.5%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인도의 리서치 컴퍼니 RNCOS는 자국의 제약 산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3%의 고속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

□ 인도 제약 내수시장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차원에서 가격제한이 엄격히 적용되  
기 때문에 인도의 제약기업들은 수익성이 높은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며, 최  
근 성장세를 통해 거둔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M&A 및 부  
분적 지분참여를 통해 공격적인 해외기업인수를 실시

- 2006년 인도의 제약업체 Dr. Reddy는 독일의 제네릭 생산기업인 Betapharm을 5억 7,000만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Ranbaxy Laboratories도 루마니아의 Terapia SA를 3억 2,400만 달러에 인수
- 제약부문에 대한 국내외의 수요증가 및 제네릭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정책으로 인도의 제약회사들은 500만~1,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중소기업 인수에도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국 제약 산업의 진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됨

#### (4) 인도의 인프라개발 관련 분야

□ 전력, 건설관련 업종, 도로, 철도, 항만 등 인도의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업종의  
투자진출과 투자유치를 연계한 접근도 필요

- 인프라건설부문의 인도 진출 후 현지에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과 인도  
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 다시 인도에 투자하는 연계형 투자모델의 발굴
- 인도의 만성적 전력부족상태는 최대 수요 시 부족량이 12%대에 이르고 있어  
짚은 정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자가 발전기를 가동하는 등 기업의 전력

비용부담이 높아 전력 및 발전기 관련 분야의 투자 유도 가능

- 인도는 전체 도로망의 2%만이 연방국도로 이중 88%가 1차선 혹은 2차선이며, 일반 고속도로의 경우도 최고속도는 시속 40km 이내로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하므로 도로건설과 관련된 부문의 양방향 투자모델도 고려

**(5) 한-인도 공동투자펀드 조성**

□ 인도와 한국의 자본이 결합한 한-인도 공동투자펀드의 조성은 양국 간의 상호 투자는 물론 제3국의 투자 및 인수 시에도 효과적인 투자방안으로 제시

- 인도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한 공동투자펀드의 활용은, 단독 투자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의 투입으로 대규모의 자본이 요구되는 투자건의 파이낸싱이 가능해짐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해외직접투자가 가능
- 공동투자펀드는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에너지원 및 해외자원개발의 경우에도 협력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치열해져가는 에너지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또한 공동투자펀드의 운영은 양국 간 개발 및 상호투자를 촉진하여 투자의 시너지효과는 물론 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

<부문별 투자유치 전략>

부문	투자유치 전략
인도의 산업발전정책과 부합되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한국 굴지의 완성차 업체 2곳을 인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체 및 가전부문에도 높은 관심을 보임</li> <li>▪ 한국기업의 M&amp;A 참여 제안 및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규모 투자처 소개</li> </ul>
IT/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으로 최첨단 수준의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IT 환경 소개</li> <li>▪ 인도 IT기업의 동아시아 진출 허브로서의 입지적·기술환경적 우위 소개</li> </ul>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글로벌 베스트셀러 약품의 특허만료로 제네릭 제조기술 및 설비를 갖춘 기업의 인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국 제약 산업의</li> </ul>

	<p>진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국의 제네릭 제약업체 발굴 및 소개</li> </ul>
인프라개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건설, 전력 등 관련업종의 투자진출과 투자유치를 연계한 투자 프로젝트 설계</li> <li>▪ 인도의 자본과 결합한 동반투자 방안도 모색 가능</li> </ul>
공동투자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한-인도 공동투자펀드를 조성</li> <li>▪ 양국 간 상호 투자 및 제3국의 공동투자에 활용</li> </ul>

## 나. 장기적 관점의 투자협력 기반 조성

### (1) 한-인도 CEPA의 적극적 활용 및 확대

- 한-인도 CEPA는 주로 교역촉진을 위한 협정에서 출발하나, 양국 간 경제적 교류의 증가를 통해 상호간의 직접투자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2010년 1월 발효된 인도와의 CEPA는 한중일 중 가장 먼저 체결 및 발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적용 측면에서 아직 현실적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 세관 측의 부당한 관세적용거부 등 활용상의 문제점도 노출
  - 한국은 경쟁국인 일본보다 1년 이상 먼저 인도와의 CEPA를 발효시켰으나 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어 FTA 이후의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CEPA의 적용 실태 점검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행시스템의 제고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업그레이드 노력이 뒤따라야 함
- 중국의 경우 인도와의 FTA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본격적인 교역 이후 계속되는 고질적인 무역적자와 수입 급증세에 경계감이 높아 인도측에서 거

부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에 이어 인도와의 CEPA를 체결

- 일본은 한국보다 1년 늦게 CEPA를 체결했지만 관세 철폐율이 한국보다 높고, 한국보다 앞서 꾸준히 인도시장과의 교류기반을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인도 시장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

## (2) 한-인도 교류기반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인도의 투자유치 및 경제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교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인도 IR, 양국 경제 기관 간 협약 체결 및 경제인의 모임 등 교류의 정례화 추진을 통해 정부차원의 관계구축에 나서야 함
  - 기업대상의 IR시에는 해외투자여력이 있는 인도의 상위 글로벌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별/기업별로 전문화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며, 투자대상으로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국내 인도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기초적인 투자정보 분석은 물론 관련 자료 및 서적의 출간도 부진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인도투자 관련 정보센터의 설립 또는 유관단체의 지원을 통해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
- 문화교류에 있어 한국과 인도는 1974년 한-인도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래 총 7차에 걸쳐 외교통상부의 주관으로 한-인도 문화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종교,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시도
  -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의 성공적 인도 진출에 힘입어 주요 언론에서 한국의 음식과 영화 등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몽골계 인도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니푸르, 미주람, 아쌈주 등 인도 동북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영화, 음악,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그러나 한류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인종, 종교 및 문화적 배경의 차

이와 인도사회 전반의 보수적 가치관, 낮은 문화개방도, 타국문화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서와 같은 단기간 내의 확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對인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협력대상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외교, 지역, 문화 등 다방면의 연계된 협력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중국에 이어 아시아시장의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인도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됨

## 【참고자료 1】 인도의 경제개발계획

개발계획	주요 목표	실적
제1차 5개년계획 (1951~5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불균형 시정, 국민소득 및 생산성 향상, 농업 및 전력개발</li> <li>목표성장률 : 연평균 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평균 3.6% 성장</li> <li>식량생산 비교적 호조</li> </ul>
제2차 5개년계획 (1956~6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주의경제체제 확립, 고용기회 증대, 기초공업 및 중공업개발</li> <li>목표성장률 : 연평균 4.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평균 4.0% 성장</li> <li>국제수지 악화</li> </ul>
제3차 5개년계획 (1961~6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성장의 가속화, 자립경제 달성, 식량자급 및 중공업 우선</li> <li>목표성장률 : 연평균 6.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평균 2.5% 성장</li> <li>파키스탄과의 전쟁으로 계획실패</li> <li>농업생산 부진</li> </ul>
제4차 5개년계획 (1969~7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안정 성장, 소득불균형 시정, 농업개발 및 수출증대</li> <li>목표성장률 : 연평균 5.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불순, 석유파동으로 실적부진</li> <li>연평균 3.4% 성장</li> </ul>
제5차 5개년계획 (1974~7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립경제 확립, 국민소득 평균 및 생활개선, 수출증진, 물가안정</li> <li>목표성장률 : 연평균 5.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정보다 1년 앞당겨 종료</li> </ul>
제6차 5개년계획 (1980~8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및 공업기반 공고화, 자립경제 정립, 기술개발</li> <li>목표성장률 : 연평균 5.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평균 5.1% 성장</li> </ul>
제7차 5개년계획 (1985~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성 향상</li> <li>고용증대 및 식량증산</li> <li>목표성장률 : 연평균 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평균 5.8% 성장</li> <li>국내 저축률 : 20.3%</li> </ul>
제8차 5개년계획 (1992~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생활, 건강 및 교육의 질 향상</li> <li>완전고용실현 및 빈곤타파</li> <li>인구증가의 적정 수준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평균 7% 성장</li> </ul>
제9차 5개년계획 (1997~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 타파 및 고용 증대</li> <li>농업생산 증대</li> <li>문맹 타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평균 5.4% 성장</li> </ul>
제10차 5개년계획 (2002~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 타파 및 고용 증대</li> <li>인구 억제 및 교육기회 확대, 문맹 타파</li> <li>생활수준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평균 7% 성장</li> </ul>
제11차 5개년계획 (2007~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층,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한 "포괄적 성장 (inclusive growth)" 지속 추진</li> <li>빈곤 타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 제고</li> <li>민간 분야의 성장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평균 목표성장률 9.0%~10%</li> </ul>

자료: 외교통상부

## 【참고자료 2】 인도의 정치 전망

### 1. 정치적 안정성

-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 주도의 연립정권인 통일진보연합(UPA)은 높은 경제 성장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패 스캔들과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정치적 입지는 계속 약화 중

#### <인도의 전국 정당(National Party) 현황>

정당명	정치 성향	특성
INC(Indian National Congress) (인도국민회의당)	대중주의(보통사람의 정부), 사회자본주의(시장자유화), 비동맹, 독자 외교정책	現 여당 통일진보연합(UPA) 주도세력
BJP(Bharatiya Janata Party) (인도인민당)	중도우파, 힌두민족주의, 시장자유주의(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특혜 반대, 종교 개종 금지, 對미 및 對서구 관계 강화, 잠무-카슈미르州 영토 회복 등 주장)	야당(NDA) 주도세력
BSP(Bahujan Samaj Party)	달리트(천민) 사회주의	
CPM(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	마르크스-레닌주의	1964년 국제공산주의와 민족주의 간 이념 대립으로 CPI에서 분파
NCP(Nationalist Congress Party)	중도 세속주의	UPA 연합 일원
CPI(Communist Party of India)	중도 공산주의	
RJD(Rashtriya Janata Dal)	세속주의, Bihar주 기반	1997년 JD당에서 분파

주: 2009. 4~5월 총선 시 선관위 등록 정당

자료: 외교통상부

- 2009년 UPA가 재선에서 승리한 이후 연립정부의 입지는 위축되었고, 이는 올해 단행된 두 번의 개각으로 더욱 악화
- 싱 정부는 두 번째 임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 부패 척결 및 인플레이션 완화정책은 물론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결정적 대안제시, 인도의 중부와 동부에서

증가하는 낙살라이트(모택동주의자) 반란 진압,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폭동 해결 등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증명해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부패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척결의지 및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세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비리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도 빈발하는 뇌물수수 스캔들은 정부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음
  - 싱 총리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 대한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그의 정부가 도덕성보다 연립여당을 유지하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지난 30년 간 수도권 뉴델리와 주도(state capital)들에서 인도국민회의당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며, 지역과 계층에 기반 한 정당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존재
  - 공통된 정책적 목표보다 정치적 기회주의에 입각한 동맹은 결과적으로 깨지기 쉬운 통치연합을 야기하고, 이러한 요인은 불안정성의 잠재적 원천으로 향후 2011-15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도 UPA는 여전히 지역과 계급에 기반 한 정당들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고, 지지를 잃어갈수록 UPA가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연립 내에서의 의견 충돌 또한 정부의 개혁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

## 2. 국내 안보

- 인도의 안보는 지역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낙살라이트의 폭력성은 집권 기간(2011-15)동안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게릴라 집단은 분리 독립을 추구하거나 그들만의 자치주를 요구하면서 인도의 북동부 지방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인도령 카슈미르에서의 안보 상황은 2010년 중반 이래 현저히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불안한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국내와 국외 모두로부터 테러의 위협받고 있는데, 이는 2008년 11월과 2011년 7월 국가의 상업 및 재정 수도인 뭄바이에서의 폭격에 의해 더욱 분명히 드러남
- 인도의 국내 종파 간 갈등 악화, 정치적 분열, 반정부 폭력사태 등은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지만, 국가의 민주적 제도들은 권력의 이동을 질서 있게 수용하면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인도에서 정치적 붕괴 위험성은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평가됨

### 3. 2014년 선거 전망

- 차후 총선은 2014년에 치러질 예정이며, 현 정부의 지지도 하락과 내각에서의 다수의석 확보 실패는 조기선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인도인민당(BJP)이 주도하는 야당의 세력이 약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정해진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
- 싱 총리의 후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만 난무할 뿐, 확실히 떠오르는 인물은 없음
  - 국민회의당의 당수인 소냐 간디(Sonia Gandhi)는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녀의 아들인 라훌 간디(Rahul Gandhi)는 저명한 정치인으로 부상하고는 있으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지적됨
  - 믿을만한 후임자의 부재는 경제 개혁가인 78세의 싱(Singh)이 당분간 그 자리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나, 만일 예상치 못한 정치적 문제로 물러

나게 될 경우에는 소냐 간디 의원이 그를 대신할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됨

- 소냐 간디 당수가 풀어야 할 문제는 싱 총리를 이을 정치력을 지닌 후임자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며, 재무장관인 프라납 무케르지(Pranab Mukherjee)와 내무 장관인 P. 치담바람(P. Chidambaram)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지만 간디 당수와는 둘 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으로 전해짐
- 가능한 또 다른 후보로는 간디 가문의 충신인 A. K. 안토니(A. K. Antony) 국방장관으로, 청렴하지만 우유부단한 정치인이라는 평판을 갖고 있음

#### 4. 국제 관계

□ 2011년 5월 초 국제 테러단체인 알카에다의 설립자이자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이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Abbottabad)에서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된 사건은 파키스탄과의 계속된 불화에 대한 인도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

- 다수의 인도인들은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혐의를 오랫동안 제기해왔고, 인도의 목격자들은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서 살았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자신들의 의혹 제기가 옳았다고 여김
- 빈 라덴의 사망소식에 싱 총리의 반응은 침착했지만, 만약 최근 뭄바이에서 있었던 폭탄테러가 2008년 사건처럼 파키스탄에서 연유했다면 인도 정부는 군사 공격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더욱 강한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임
- 이는 현재의 인도 정부가 2008년에 비해 훨씬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이며, 인도에 대한 테러 공격에 있어서 파키스탄이 공식적으로 공모해왔다는 의견이 현재 더 많이 지지받고 있기 때문
- 2008년 뭄바이가 공격당한 후 그해 11월 중단된 이래 간헐적으로 재개되어오

던 양자 간 대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인도의 니루파마 라오(Nirupama Rao) 외무차관과 파키스탄의 살만 바쉬르 (Salman Bashir) 외무차관은 2011년 6월 23-24일 양일간 안보에 초점을 맞춘 회담을 개최했고, 중-인도 간 영토분쟁지역인 카슈미르 이슈도 함께 논의

□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것으로 드러남

- 2010년 12월 중국의 원자바오(Wen Jiabao) 총리는 3일간 인도를 방문했으며, 무역 부문의 협이는 성공적이었으나 양국 간 군사·전략적 갈등의 증가는 장차 아시아의 강국이 될 양국 간 장애물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인도령 내에 있는 카슈미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도는 중국이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분쟁중인 지역으로 중국 군대가 자주 개입하는 것은 양국 간 오래된 국경 다툼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또한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의 중국이 참여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고, 티벳에서의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이러한 이슈들은 2011-15년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양자 간 무역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억제에 대한 공감, 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권력공백 상태에 대한 두려움 등 일반적인 군사적 이슈들이 對美 관계의 핵심으로 남아있음

작성자

◆ 외국인투자정책센터 김동희 선임연구원

감수

◆ 투자정보팀 박용수 팀장

KOTRA자료 11-057

## 인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발행인 | 홍석우  
편집인 | 안홍철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11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

※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